

고진영·박인비·박민지, BMW 챔피언십서 첫날 같은조

박성현·최혜진·리디아 고도 한 조에 편성

김세영·전인지·박현경도 같은 조서 출발

여자 골프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과 3위 박인비(33), 박민지(23)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한 조에 편성돼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기장군의 LPGA 인터내셔널 부산

(파72)에서 펼쳐진다.

고진영, 박인비, 박민지는 10시 12분 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고진영은 세계랭킹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으며, 박인비 역시 국내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올해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에서 6승을 쓸어들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박민지 역시 선전을 예고했다.

특히 고진영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도 60대 타수를 기록할 경우, LPGA 투어 역사상 최초로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의 금자탑을 쌓는다.

고진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대회가 열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장하나(29)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장하나는 태국 선수



(사진 왼쪽부터) 고진영·박인비·박민지

에리아 쭈타누간, 해나 그린과 한 조를 이뤘다. 장하나는 "부담이 있지만

에선 것이 없는 만큼 첫날부터 무빙데이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박성현(28), 최혜진(22), 세계랭킹 8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한 조에서 출발하고, 세계랭킹 4위 김세영(28), 전인지(27), 박현경(21)도 한 조에 나선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한국인 LPGA 투어 통산 200승의 주인공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유희가 1988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필드 토티먼트'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33년만에 한국인 200승에 도전한다. 뉴스

생각보다 끈끈했던 V-리그 막내 페퍼저축은행

KGC인삼공사 맞아 첫 세트 따내...이적생 이소영 21점



19일 오후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V-리그 A1페퍼스 대 KGC인삼공사의 경기, A1페퍼스가 첫 세트를 승리한 A1페퍼스가 기뻐하고 있다.

여자부 7번째 구단으로 합류한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 경기는 기대 이상이었다. 승리를 손에 넣진 못했지만 끈끈한 플레이로 새 바람을 예고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9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KGC인삼공사전에서 세트스코어 1-3(16-25 25-20 25-21 25-17)으로 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1년 IBK기업은행 이후 10년 만에 탄생한 여자부 신생팀이다. 특별지명과 신인드래프트로 뼈대를 세우고 실업팀에서 몇몇을 보강했지만 타 구단에 비해 전력에 크게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어도 이 날 경기에서는 이런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3명(이소영·박은진·염혜선)이 포진된 KGC인삼공사를 맞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역사적인 첫 세트는 페퍼저축은행의 차지였다. 7-7에서 상대 범실로 시동을 건 페퍼저축은행은 엘리자벳의 킥오픈과 이현의 서브 에이스로 힘을 냈다. 여기에 이한비의 중앙 후위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페퍼저축은행이 4점차로 앞섰다.

흐름을 탄 페퍼저축은행은 매섭게 KGC인삼공사를 몰아쳤다. 하혜진은 14-9에서 박해민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6-10에서는 엘리자벳의 서브가 KGC인삼공사 코트에 떨어졌다.

페퍼저축은행은 24-16에서 엘리자벳의 오픈 공격으로 1세트를 가져왔다.

예상 밖 일격을 당한 KGC인삼공사는 2세트 들어 힘을 냈다. 8-5에

서 박은진과 이소영이 연속으로 블로킹 손맛을 보며 체육관의 공기를 바꿨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점수를 쌓아나간 KGC인삼공사는 2세트를 25-20으로 잡고 균형을 맞췄다.

KGC인삼공사는 3,4세트를 연거푸 따내면서 역전승을 완성했다. 3세트 21-21에서 엘레나가 공격과 블로킹으로 연속 3득점을 올려 상대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KGC인삼공사는 4세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추격을 17점으로 막고 승리를 확정했다.

이적생 이소영이 팀내 최다인 21점을 책임졌고, 엘레나가 19점을 지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첫 세트의 기세를 잊지 못했다. 전체 1순위로 뽑힌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은 데뷔전에서 22점을 올렸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세트스코어 3-0(25-20 25-17 25-18)으로 완파했다.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은 첫 경기부터 무실세트 승리를 챙기면서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뒤늦게 합류해 아직 적응을 마치지 못한 다우다가 16점, 공격성공률 46.15%에 그쳤지만 서재덕이 12점, 공격성공률 57.14%로 분전했다. 센터 박찬웅(10점)은 블로킹을 무려 8개나 잡았다.

지난 시즌 창단 첫 최하위의 수모를 당한 삼성화재는 홈 개막전에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친정팀을 만난 리얼맨 26점을 올렸을 뿐 국내 선수들은 아무도 5점을 넘기지 못했다.

은퇴 김하늘 "더이상 우승 경쟁 어렵다고 판단"

다음달 KLPGA투어 대회 마지막으로 은퇴



한국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통산 14승을 올린 김하늘(33)이 더이상 우승 경쟁이 어려워졌으며 은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하늘의 매니지먼트사 리한스포

츠는 김하늘이 오는 11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늘은 앞서 노부타그룹 마스터즈GC 레이디스 대회를 마지막으로

JLPGA 투어에서 은퇴한다.

2006년 KLPGA에 입회한 김하늘은 2007년 KL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했으며,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한국에서 통산 8승을 올린 김하늘은 2015년부터 일본 무대에서 6승을 수확했다. 김하늘은 일본에서 동갑내기 이보미와 함께 큰 인기를 누렸다.

김하늘은 일본 매체 'THE ANSWER'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선수들도 잘하고, 더이상 우승 경쟁을 할 수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게 힘들어진 점도 원인이다.

김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 골퍼로 15년간 뛰었는데 현역에서 은퇴하게 됐다. 선수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료 선수들은 그녀의 은퇴를 안타까워하며, 제2의 인생을 응원했다. 뉴스

SSG 홈구장에 최정 좌석 생킨다

개인 통산 400홈런 기념 내년 시즌 특별 좌석 설치...400원 판매



내년 시즌 인천 SSG랜더스필드 홈구장에 최정(34·SSG 랜더스)의 통산 400홈런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 좌석'이 설치된다.

SSG 구단은 20일 신세계그룹사와 함께 최정의 개인 통산 400홈런 기록

을 기념해 대규모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특별 좌석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최정의 홈런 타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외야 114블럭에 특별 좌석이 설치된다.

SSG 구단은 "최정의 아니션과 등번호에 착안해 'C'형 14번'을 특별 좌석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정 좌석'은 내년 시즌 홈경기에서 400원에 판매된다. "최정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단은 설명했다.

최정 400홈런 기념품도 22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최정의 사인이 새겨진 약 400mm의 미니배트, 인스타 피규어, 기념주화, 패치, 포토크드, 사진 등으로 구성된 '미니배트 패키지 세트' 400개와 최정 피규어, 포토크드 1장으로 구성된 '피규어 세트' 200개가 한정 판매되며 SSG닷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최정 대기록 달성 축하 댓글 이벤트'를 통해 구단 공식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게시글에 축하 댓글을 남긴 총 14명을 선발해 최정 친필 사인 유니폼을 선물한다.

한편 최정의 400홈런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신세계그룹사들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

男농구 11월 월드컵 예선, 내년 2월로 연기...KBL 일정은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 제약 많아...필리핀 상대로 원정에서 2경기 모두 치러야



조상현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 (사진 = 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한국 남자농구가 다음 달 치를 예정이었던 2023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1차예선 A조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대한민국농구협회와 KBL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에 제

약이 많아 한국이 속한 A조의 11월 22~30일 원도우1 일정이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원래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리지만 입국시 자가격리 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FIBA 차원에서 11월 일정에 한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조는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가 속했다.

한국은 내년 2월 필리핀에서 홈팀 필리핀과 2경기, 뉴질랜드, 인도와 한 경기씩 총 4경기를 치른다.

결그러운 상대인 필리핀의 안방에서 2경기를 모두 치르는 점이 한국으로선 불리하다. 한국은 지난 6월 FIBA 아시아컵 예선에서 필리핀에 2연패를 당했다.

각 조에서 최하위를 뺀 세 팀이 2차 예선에 진출하는데 1차예선의 성적을 그대로 안고 2차예선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매 경기가 중요하다.

월드컵은 2023년 8월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최한다.

한편, 국가대표 경기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19일부터 30일까지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KBL은 10개 구단과 이 시기에 경기를 다시 배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첫 훈련 마친 이다영 "몸 무거웠지만, 주변에서 도와줘"

구단 유튜브에 인터뷰 공개

그리스 PAOK 이적 후 첫 훈련을 소화한 이다영이 완전하지 않은 컨디션에도 동료들 덕분에 잘 마쳤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다영은 20일(한국시간) 구단이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몸이 조금 무겁고 안 만들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선수들이 도와줘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왔다.

학교 폭력으로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다영은 그리스 PAOK와 계약을 맺고 지난 16일 출국했다.

PAOK는 구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두 선수의 훈련 장면들을 여러 소개하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사진=PAOK 유튜브)

두 선수는 이르면 21일로 예정된 올림피아코스전을 통해 그리스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긴 공백으로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조금씩 경기에 나서며 몸 상태를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이다영은 "영상을 많이 보고 어떻게 플레이 할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올림피아코스라는 팀과 붙어 긴장도,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